

6월 일기장



이름: 말레이얏호

6월 Schedul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캄보 디아 여행	2 캄보디 아 여행	3 캄보디 아 여행
4 캄보 디아 여 행	5 캄보 디아 여 행	6 캄보 디아 여 행	7	8 캠 프	9 캠 프, 중 간 평가	10 중 간 평 가
11	12 페 낭 도 착	13-14 Orientation about YMCA (youth charity carnival, deaf school, CCF, Y café)		15	16	17
18 *7시-3시 Deaf school *7시-2시 Y café	19 •Deaf school • Y cafe	20 •Deaf school • Y cafe	21 •Deaf school • Y cafe	22 •Deaf school • Y café • Group meeting	23	24 CCF (3시 -5시)
25 *7시-3 시 Deaf school *7시-2 시 Y café	26 •Deaf school • Y café •handic raft night	27 •Deaf school • Y cafe	28 •Deaf school • Y café •korean culutural night	29 •Deaf school • Y café • group meeing	30 *운 동 회	



캄보디아 여행





헤민 :

캄보디아 가기 전에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걱 정 했 었 다 . 이 런 마음으로 떠나다보니 햇 빛 도 , 캄 보 디 아 도 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 실 캄 보 디 아 에 서 돌아다니던 곳 들, 하나 하나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장소들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죽음, 아픔을 나는 지켜 보 면 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냈던 나 를 되 돌 아 보 며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길가에서 한국말을 하며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이를 지나치면서도 연신 그 아이는 내 머리속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돈을 주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밥을 사먹기 위해선 아끼지 않는 돈을 쉽게 내주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쉽고 한심했다. 한국에서도 이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정답이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다.

내가 지냈던 숙소 주변은 술집이 많았고 관광을 하기에 좋은 거리들이었다. 하지만 나만 따스하고 배부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술집 근처에는 나이 많은 외국인이 젊은 캄보디아 여성과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마음이 복잡한 날들이었다.

캠핑을 만나고 나래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을 만나고부터 아침을 먹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갓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대해 나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캄보디아에 오지 않았다면 책에서만 읽고 ‘알았다.’고 말했을 아이들의 배고픔에 대해 이제서야 알게 되고 고민한 것이 부끄러웠다.



보영: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캄보디아를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온통 나무색과 흙색이었다.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해서도, 킬링필드와 뿌오슬랭(공산당 치하 감옥)에 가는 길에서 본 전원적인 풍경은 편안하게 다가왔다. 첫날 숙소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 곳은 야시장이었다. 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곳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야시장은 관광객들을 위한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구도 몇 개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 곳에 터전을 잡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때 맡은 꽤쾌한 냄새와 어두컴컴한 야시장에서 느낀 묘한 기분은 잊을 수가 없다.



다음날 프놈펜에서 시엠립으로 가는길, 창밖으로 본 풍경은 내가 말레이시아에 파견되기 전 상상해온 라온아띠의 활동지와 거의 일치했다. 나무로 지어진 집들, 건물과 상점은 아주 드문드문 있었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전구로 빛을 비추는 집은 몇 집 없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캄팀은 실질적으로 생활적인 면, 예를 들어 교통편에 있어서나 통신의 문제, 혹은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불편함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여기 와서 생활환경이 너무도 다른 데서 느끼는 이질감 같은 것을 어떻게 극복했을지, 어떻게 적응을 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만약 나였다면, 느껴지는 이질감, 예를 들어서 이곳 아이들은 돈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생업활동을 하고.. 하는 등의.. 어떻게 맞느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 기준에 비추어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당연한 사실에 어떻게 타협하고 적응하고 있는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이질감들을 느끼면서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의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킬링필드와 앙코르와트에 갔을 때,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엽서를 파는 아이들을 보았다. 아이들을 처음에는 연민의 시선으로 봤던건 사실이지만, 엽서를 팔다가 친구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예뻐고, 아이들은 아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그리고 각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연민의 감정을 가졌던 것 처럼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폭력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 아이들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아이 한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캄보디아팀 아띠들도 만났다. 그냥 너무 반가웠다.....(표현 잘 못했지만...ㅋ) 캄보디아 팀의 활동지인 다일 공동체도 둘러보았다. 다일공동체에서 하는 주요 활동중에 밥퍼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한 생각이 있다. 국내 훈련 때 퍼주기식(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이나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제공하는 식의 자원활동)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눴던 기억이 난다. 밥퍼 활동도 구분을 하자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번씩 몇백명의 아이들이 필요로 해서 밥을 받아간다는 설명을 들으며 캄보디아에서는 밥퍼 활동과 같은 활동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캄보디아 팀을 만나고 그냥 우리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 있다는게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하는 활동과 캄팀이 하는 활동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남은 기간 동안 하는 활동에 회의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잘 지내다가 공항에서 웃는 얼굴로 다시 봤으면 좋겠다. 안녕 캄보디아~~





광호 : 캄보디아에는 툭툭이라는 교통수단이 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 모든 일정을 툭툭이와 함께했다. 앙코르 사원을 둘러보다 보면 사원에는 항상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밖에 안보이는 아이들이 엽서를 팔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오늘 본 아이는 이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정말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더운 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엽서를 팔고 있는 걸 보니 부모님은 어디서 무얼 하시는지... 궁금해 지기도 했다.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 한국어들, 우리가 한국인임을 어떻게 아는건지 툭툭이에서 내리기만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달려와 '오빠 멋있어요, 10장에 1달러, 제 이름은OO입니다 나중에 다시 와요' 서툴지 않은 한국말이 술술 나온다. 7-8세로 밖에 안되 보이는 아이들인데 왜 이런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아이는 아이인지라 장사속이 없다. 노뽕스 하고 바이바이 손을 흔들어주면 마냥 좋아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준다. 이 아이들은 누가 시켜서 이런일들을 하고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캄보디아 마지막 오전일정을 라온아띠 캄보디아팀이 활동하고 있는 다일공동체에 방문하기로 했다. 다일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마을 구경도 했다. 또한 캄팀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른 팀들도 말레이시아 한번 방문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훈 :

"1dollar..plz..."

앙코르와트를 둘러보다보면 남루한 차림의, 혹은 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을 법한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손을 내밀면서 1달러를, 때로는 엽서를 사달라며 슬픈눈을 한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다. 머리로는 알고 있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 이럴땐 눈 꼭 감고 손에 돈을 쥐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내가 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결국, 1달러짜리 엽서를 샀다. 이내 땡큐를 외치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



다음 날, 한적한 사원에서 엽서를 팔고 있는 한 아이을 만났다. 이번엔 곁에 다가가서 앉았다. 아이 얼굴이 이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바꼈다. 이름을 물어봤다. 망설이다가 말해준다. 꼬아라고 했다. 아침식사대용으로 샀던 초코파이와 카스테라를 꺼냈다. 고요한 앙코르 유적지에서 별 말없이 초코파이와 카스테라를 나눠먹었다. 초코파이를 입 주위에 잔뜩 묻히고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싱긋 웃는다. 행여나 목이라도 막힐까 물도 줬더니 날 경계하지도 않고 선뜻 고맙다며 받아든다. 기분이 묘하다. 난 다시 돌아가야했다. 손을 흔들었다. 꼬아도 손을 흔들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다가 뒤를 돌아봤다. 꼬아는 다시 엽서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마음이 아팠다.



아라 : 작년 1월 캄보디아 프놈펜과 씨엠립을 다녀왔었다. 또 오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1년만에 다시 오게 되다니. 사람일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 난 두 곳을 꼭 다시 가고싶었다. 첫번째는 앙코르와트 였다. 1년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사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저번 여행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따로 유적지에 대해 공부를 다시 해가지 않았다가 앙코르와트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왔다. 너무 아쉬웠다. 그래도 팀원들끼리 서로 귀동냥하는거 공유하는 소소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었다. 다음에 공부하고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두번째로 다시 가고 싶었던 헌책방에 갔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이 내 살면서 찍은 사진중 가장 마음에 든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였다. 다행히 숙소와 헌책방이 가까워 혼자서 쉽게 갈 수 있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더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생각 - 머리만 컸지 가슴으로 손으로 배운것을 행하고 느끼며 살지 못했다- 만 들었다.



더불어 살고 싶다고 해놓고 무엇과 어떻게 더불어 살지는 아직도 모르겠고, 생태적인 삶, 순환하는 삶이 중요하다는건 배웠는데 그렇게 사는게 뭔지 잘 모르겠고 어려운거 같아서 하기 싫고. 계속 챗바퀴 돌듯 발전 없는 나를 보게되었다. 우.

씨애플에서 활동하는 아띠들을 만난것이 이번 여행중 가장 인상 깊은 일이었다. 타지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고 서로 사는 이야기 공유하면서 아띠들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마을 구경을 캄보디아팀과 함께 하면서 하늘언니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언니가 마음 깊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끼는게 느껴졌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지내면서 여기서 만난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350ppm 캠페인





광호:

준비한 시간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동안 350ppm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나 캠페인을 해야 할 환경의 날이 우리의 캄보디아 여행과 맞물려서 더 좁은 시야에서 캠페인을 준비하게 된 것 같다. 내가 막상 캠페인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런 것을 공유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보영: 말레이시아에 와서 350ppm을 솔직히 잊고 지냈다. 가는 곳마다 물통을 사들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도 스타프 차를 얻어타고 다니고, 에어컨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여기 말레이시아에 있는 동안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가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내왔던 내가 350ppm 캠페인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과연 내가 캠페인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해야했다. 정말 억지로 했다. 내용이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다. 앙코르와트에서 350ppm을 알리는 목적으로 등 뒤에 종이를 붙이고 다닌 날, 한 외국인이 350ppm이 뭐냐고 물어봤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350ppm을 실천하고 있지 않아도 타인 누군가에게 350ppm을 알리고 실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였는데 기회를 웃기게 날렸다.. 계속해서 회의감이 들었다. 그리고 deaf camp에서 아이들과 클레이로 나뭇잎을 만들어 350ppm 문구를 만들던 날. 만들기를 끝내고 한 스타프 나무심기가 350ppm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라고 밖에 대답하지 못한 내가 너무 창피했다. 나무심기가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순 있지만 배출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많이 부족했던 탓이다.

350ppm 캠페인을 여차저차 끝내고 돌아보니, 난 라온아띠로서 뭘했나.. 라는 생각에 빠졌다. 나로서 성실하게 활동해왔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라온아띠로서의 나는 완전히 잊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레이시아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래도 내가 쓰는 플라스틱 용품이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 등이 불편하게 다가왔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렇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고민을 계속하지 않은 사이, 익숙해져버렸고, 결국은 말레이시아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내온 것 같다. 지금부터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꾼다고는 약속 못하겠지만, 내가 할수있는 한에서는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때우듯 지나가버린 350ppm 캠페인은 나에게 있어 가장 아쉬운 활동이 될 것 같다.



지훈 : 정작 내 자신도 바뀌지 않고 나의 작은 약속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캠페인을 한다는 자체가 내 스스로에게 너무 비겁했다. 창피했다. 작은 것부터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개인과제였다면 나는 과감하게 포기했을 것 같다.

행여나 누군가가 350ppm에 대해서 나에게 반문한다면 나는 아마도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다.



아라 : 아마 이 활동은 내가 여기 5개월동안 지내면서 가장 아쉬웠던 활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 350ppm의 취지나 의미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했었지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캠페인을 끝내려는 생각만해서 너무 아쉽다. 캠페인이 만족스럽게 끝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캠페인을 하면서 내 평소의 생활패턴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찻찻함을 잊지 않고 계속 350ppm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겠다.



혜민 : 캄보디아 팀 보고서에서 아띠퐁퐁을 봤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돌아보았다. 여기서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국내 훈련에서 받았던 교육들이 무색할 정도로 나는 여러 고민들을 그동안 잊고 지냈다. 그래서 350ppm을 준비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려니 정말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도 조금은 혼나고 싶지 않아서, 또 해야하는 일이니깐, 하는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캠프시간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준비했는데 사실 엄청 많이 부끄러웠다. 물론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림이나 함께 만들었던 클레이아트를 통해서 누군가 한명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을 수도 있지만, 많이 아쉽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 형식적인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후아아.

KL YMCA ART PRE-SCHOOL CAMP



지훈: 캠프가 시작되었다. 꼬맹이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좀 괴롭혔더니 날 이기려고 금새 기어올랐다. 아 그런데 그래도 귀엽다:) 많은 게임들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더 신났다. 마지막 낚시 게임을 끝내고 남은 물을 모두에게 뿌리고 서로를 쫓아다니며 물풍선을 던지고 서로에게 물을 뿌렸다. 모두가 흠뻑 젖었다. 행복해졌다.



아라 : 캠프가 진행되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 수줍어 하다가도 이내 나중엔 앞에 나와서 춤추는 모습이 너무 예뻐보였다. 다만 내가 프리스쿨 아이들을 만날때마다 아파서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요즘 아이들은 생각도 많고 성숙한 것 같아서 더 이쁜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헤민 : 캄보디아를 다녀와 중간보고 준비를 하면서 너무 정신없이 캠프를 맞이했다. 캠프 기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노는건 재미있었지만, 우리가 준비한게 허술해서 조금 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350ppm같은 경우는 에스더와 몰리가 수화로 설명해줘서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 날 캠프는 중간보고 때문에 많이 참가하지 못해서 에스더에게 미안했다. 그래도 캠프기간동안 아이들과 놀 수 있어서 행복했다.



보영 : 캠프 당시에 중간 보고를 준비해야하는 부담과, 캄보디아를 다녀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사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캠프라서 준비를 잘하고 싶었다.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캠프가 진행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훌 지나갔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캠프였다. 그런데 캠프를 하는 동안에는 에스더와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고 놀았다. 그 순간만큼은 중간보고건 뭐건 다 잊었다. 아, 그런데 데프 아이들이 산만하게 돌아다닐 때, 멀리 가면 부르지 못하고 직접 데려와야하는 상황 때문에 몇번씩이나 게임 중간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했고, 내가 수화를 잘 하질 못해서 아이가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또,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의 수화를 들어주지 못해서 한 친구한테만 계속 집중하게 된 점, 미안하다 친구들아ㅠ_ㅠ



광호 : 캠프가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한다. 오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준비한 게임을 시작했다. 여기 아이들은 베다니 홈 아이들과는 다르게 게임 도중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은 역시 물로 하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에 젖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재미있게 끝이 났다.

4. 중간 평가

광호 :

8am , 우리가 캠프에서 맞은 아침운동을 준비해야한다. 하지만 오늘은 중간 평가가 있는 날이라서 아침을 먹고 중간평가 준비를 한다고 바쁘다. 전 날, 4시에 잠이 들었다. 간단한건데 준비를 계속해도 부족하다. 오후 3시에 중간평가가 시작되었고, 무사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맛있는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간사님과의 개인면담에서 개인적인 피드백을 들었다.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많았고 솔직히 내가 우려하던 부분에서 주의를 많이 들었다. 맥주를 마시고 또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지훈 :

사실은 중간평가를 끝내고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일기가 쓰기 싫어질 정도로. 무언가를 기록한다는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겁했다.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기로 했다. 분명한건, 여기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간사님이 말씀하셨던데로 무엇을 하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어쩌면 그동안 나는 내 꿈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

아라 :

중간평가 전 날, 광호 오빠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중간평가가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개인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 함께 모두 짊어져야할 짐을 그동안 팀원들에게 떠넘긴게 아닌가 해서 미안했다. 그리고 중간평가 기간동안 개인면담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고

, 간사님의 냉정한 말들이 나에게서는 아프게 다가왔지만 맞는 말이기엔, 화도 안나고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뭔가 베다니 홈 활동을 하면서 우리 팀이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평가를 통해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것 같다. 중간평가가 나 개인에게도 우리팀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보영 :
중간평가를 하면서 패닉에 빠졌다. 평소에 내 성격탓인지는 몰라도 팀원들과 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내가 힘들때는 정작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만을 들어주기만을 바랬다. 그게 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간사님이 지적한 팀 차원의 소통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간사님과 면담을 끝낸 후,잠깐 패닉에 빠졌다가, 지금 이대로 지내자는 생각보다는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온전히 내 스스로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었다는 점. 그러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혼자하는 생각보다는 나누면 더 풍부해지고 깊은 생각이 오고간다는 것을 간파하고 지낸 것 같다.

혜민 :
중간보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간보고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에게 중간보고라는 시간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았다. 그런데 중간보고가 막상 시작되니깐 이 중간보고가 생각보다 큰 과정이었음을 알았다. 간사님의 면담에서는 간사님이 생각보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패닉이 왔고, 끝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에게 필요한 말들이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었다.

사진을 정리해보니 아나간사님과 찍은 사진이 없다
.....



5. DEAF SCHOOL 평일 일정





아라: 공교롭게도 나는 deaf school에서 한번도 수업진행을 하지 못했다. 이런일이 처음은 아닌지라 속상하진 않았지만 다른 팀원들이 나보다 아이들과 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조금 속이 쓰렸다. 여기도 선생님들이 할 일이 참 많아보이셔서 도서관 정리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일했다. 하루 스포츠 데이 연습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비록 수화를 잘 못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아이들과 이야기하려고 서로 노력했다는 것 만으로도 좋았다. 애들이 다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외웠는지 확인을 하는데 진땀이 났다. 많이 외우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보영: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할 때 베다니에서 활동하던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했다. 나는 내가 학교에 나가는 4일중 3일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선생님이 부탁하신 미술활동을 했다. 기뻐던 것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내가 만든걸 보고 너무나 좋아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친구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선생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는건 다른 일이라고 구분을 지어왔는데 미술활동은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들을 웃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 일이 다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민: 라온아띠 오기 이전에는 아이들이랑 지내본 적이 없어서 학교에 간다는게 막연하게만 다가왔다. 베다니홈에 도착하고 처음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참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기서도 느꼈다.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일정이라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고 한국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처럼 수화가 잘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아이들이 캐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한편으로는 베다니홈에 있는 쭈윤도 이런 데프스쿨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수화도 더 많이 쓸 수 있을테니 그 친구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돌아보면서 에스더도 이런 곳에서 지냈을 것 같아 많이 보고싶어졌다.



광호: 우이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도서관에서 스포츠데이 준비를 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이선생님께 아티스트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동시에 미술을 참 좋아했던 중학교 시절이 생각나고 잊어버렸던 동심을 찾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도 역시나 예쁜 아이들이 참 많다. 미술수업을 맡아서 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thinking paper가 무색해질 정도로 아이들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deaf 친구들은 유난히 손재주가 좋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훈: 역시 아이들과 하는건 즐겁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미술을 했지만 잘 따라와준 아이들이 고마웠다. 아이들과 함께 미술하다보니 애들은 내가 하는 과정 과정을 모두 따라했다. 기절할 뻔 했다. 결과물이 똑같았다. 당연하게도 모든 반 아이들의 작품들은 짝 것처럼 똑같아졌고 나는 연신 수화로 설명했다. “안되! 창의적으로 해야해!” 담임 선생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다. 하나하나 다 다르다고 하셨다. 이것 또한 창의성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방도 창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의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모처럼 학교를 가니 즐거웠다. 하지만 베다니홈과는 약간 달랐다. 그 곳에서 난 항상 맨발로 뛰어다녔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킴! 신발이 어디있냐?" 면서 깜짝 놀라신다. 아마 조금은 다른가 보다.



5. DEAF SCHOOL 행사 (Handicraft night, Cultural night)





아라 :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그 전 까지 청소년들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있었다. 그래서 첫 행사인 핸드크래프트 데이 날 120명의 아이들을 보니 기운이 빠졌다. 게다가 우리 조에는 우리가 준비해 간 학접기를 이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당황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정신을 못차렸다. 우리조 친구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편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인지 게임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폭풍’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좀 더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오해가 있어서 몇 학생들이 우리물품인 제기를 빌려갔는데 엘라(행사를 함께 한 스태프)가 그걸 다 받지 못할거라고 말해서 또 한 번 혼이 빠져나갔다. 그래도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했으니 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걸쳐 나잇 때 아이들이 제기를 다 돌려줬고, 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사라졌다!

걸쳐 나잇을 준비하면서 전에 들었던 피드백을 참고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행사 당일 y 카페에서 달걀이랑 당근 볶아 준비해야 했는데 갑자기 카페 스태프가 손님이 오면 내가 준비하던 것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안그래도 요리 잘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다행히도 정해진 시간안에 재료준비를 끝냈지만, 지나치게 긴장한 탓일까? 당근 절반을 간을 하지 못한 상태로 볶고 말았다. 다행히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 겠다.

컬쳐나잇 행사에서는 학생들 한복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스스로 입을 수 있게 앞에서 시범보이면서 알려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간안에 학생들 다 입어보게 진행하랴, 애들 옷 입혀주랴 땀이 줄줄 났지만, 입혀놓고 보면 하나같이 다 멋있고 예뻐서 그 기쁨에 힘이 났다.



보영 : 핸디 크래프트 데이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처음 만났는데 한국에서 멘토링 활동 하던 게 생각났다. 말레이시아에 오기 직전까지도 멘티 친구들이 면접 준비부터 훈련까지 주절 주절 얘기하고 왔었는데.. 그 또래 아이들을 다시 보니 친구같고 좋다. 종이 접기를 하는데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끝까지 물어봐서 완성을 시킨 친구가 있었다. 그게 하나도 귀찮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 수화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고 이방인인 나를 벽 없이 반가워해준 것도 고마웠다.

그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뭔가 성장해가는(?) 나름의 고민들을 안고 있는 동시에, 순수한 모습을가지고 있는 것 같아 좋다.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기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일상의 단비를 뿌려준 것 같아 뿌듯하고 좋았다.

또 목요일에 있었던 컬쳐나잇에는 수화 노래를 준비해갔는데 아이들이 시작과 동시에 박수를 쳐줬다. 그냥 그 순간에 되게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입지도 않는 한복을 아이들에게 입혀줬는데 정말 좋아해서, 다른 문화를 나누는 것이 참 특별한 경험임을 알았다. 끝나고 사진을 찍는데 내가 연예인인 마냥 내 팔을 잡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친구들을 보며 그 순간에는 으쓱한 기분이 들었지만 집에 와서 카메라를 돌려보니 그 친구들을 두 번밖에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준비과정에서 내가 성실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든다.

무려 120명의 학생들이!





광호 : 걸쳐나잇이 있는 날, 생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다. 팀을 나누고 통제를 하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여기 아이들이 쓰는 수화는 우리가 배운 수화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표정, 손짓, 발짓, 몸으로 보여주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무사히 끝이 났지만 라헬라의 피드백에 약간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목요일을 기약하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목요일 걸쳐나잇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밥 만들기과 한복 입기 등 행사 준비를 하면서 엘라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었다. 김밥 재료부터 내 방식대로 하지 못했다. 자꾸 라온아띠 5기의 방식을 따라가려 한다. 재료를 넉넉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많다며 뭐라고 한다. 우리가 준비한 ppt와 한국 노래 수화를 성공리에 마치고 김밥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서둘러야 했다. 걱정과는 달리 친구들은 김밥이 맛있다고 친구들은 김밥을 뺏어먹기도 하며 연신 곳을 외쳤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같이 사진찍기 바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굴이 익숙해지고 정이 가는 친구들이 많다.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국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



지훈 : 첫 날의 행사를 마치고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다시 한 번 나의 고집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게 맞는지, 아이들이 즐거운 게 먼저인지 생각을 하며 괴로워졌다. 몇일이 지나고 두 번째 행사가 시작되었다. 데프 친구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동영상은 내가 만들었는데 배경음악을 깔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내가 느끼기에는 지루했다. 음악이 없으니 5분간의 시간이 더디가는 것 같았다. 그 시간에 아이들의 표정을 지켜봤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곧이어 김밥 만들기가 시작되고 나는 살면서 단 한번도 만들어보지 못했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잘하지 못하는 김밥을 만들면서 흥미로워 하는 아이들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다. 맛있게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보니 즐거워졌다. 행사가 즐겁게 끝나고 아이들에게 맛있었는지, 토할 것 같았는지 질문을 했다. 토할 것 같다고 몇몇 친구들이 손을 들었다. 너희들..

얼굴 기억했다. :<



5. DEAF SCHOOL 행사 (저학년 운동회)





혜민: 라헬라의 차를 타고 아침에 학교에 갔다. 뭔가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앉아서 보라고 하셨고, 응원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저 구경하고 사진찍었다. 넬슨이 하는 경기를 좀 많이 봤으면 좋았을텐데, 계속 앉아있고 친구한테 장난만 치고 있어서 아쉬웠다. 마지막에 학부모님들이 하는 게임을 어찌다 같이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풍선을 불어봤고 마음이 급하니까 못하는걸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았음!)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보면서 1,2등을 굳이 나누지 않고 즐겁게 하시는 걸 보며 정말 좋아보였다.

아라: 가서 일할 줄 알고 다리에 선크림까지 바르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허무했다. 베다니 운동회처럼 여기 운동회도 손님을 위한 운동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아이들이 즐기면서 게임을 한다가보다는 해야하니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안타까웠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배운 댄스를 하는 걸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을 모습이 상상이 됐고 그래서 참 예쁘고 대견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날 만나게 되어서 얘기도 하고 함께 운동회도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보영: 봉사자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저 지켜봤다. 우리가 만든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멀리서보니 더 예쁘구나 피켓아! 초등학교 때 운동회 생각이 났다. 항상 달리기 2등을 했었는데...



지훈오빠 학부형 게임하고 상받음요

광호: 8시에 학교에 가니 행사준비에 바쁘다. 아이들은 닭 분장을 하고 그 동안 우리가 만든 앵그리버드 피켓을 들고 서있다. 문득 베다니 스포츠 데이가 생각났다. 학교에서 우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주셨다. 짧은 시간 동안 뭐 한 것도 없이 이런 대접을 받으려니 미안하다.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걸 보니 마음이 행복해졌다.

지훈: VIP석에 앉았다. 아이들이 귀엽고 즐거워보이기도 했지만 그곳에 앉아서 지켜보는 마음은 아쉬웠다. 아쉬운 마음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이 같이 축구하자고 했다.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해서 쉬엄쉬엄 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 실력이 제법이다. 신이 나서는 열심히 뛰어다녔다. 얼마나 뛰어다녔던지 신발이 찢어졌다. 땀이 쉼없이 떨어진다. 오랜만이다. 기분이 좋다. 축구를 마친 후 아이들과 축구부처럼 사진도 찍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는 기숙사를 보여준다고 했다. 따라가서 기숙사 구경도 하고, 아이들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한국이나 여기나 어딜가나 그 나이에 아이들은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

딱 2주간 이곳에 와서 단기봉사단 같은 기분을 또 느끼고 돌아간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고 같이 김밥을 말았던 기억은 잊지 못할 것 같다. 고마웠고 따라와주느라 고생했다.



아라 : 한국에서도 한번도 카페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아서 나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솔직히 아직도 내가 Y카페에서 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Y카페에서는 내가 현지 스태프들과 동료로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6. Y cafe

보영 : 나도 Y카페에 가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점은 아르바이트같은 경우에는 바쁜 경우 점장이 직원들을 달달 볶았는데 여기는 바빠도 먼저 힘드냐고 물어보는 스태프들이 있어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재료를 손질하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을 하러 온건 아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Y카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차라리 y café에 나가는 시간에 데프스쿨에 더 나갔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다. 데프스쿨과 카페를 번갈아서 나가는 상황에서 데프스쿨을 나가야하는 전 날 밤에는 수업준비를 하느라 바빴지만 Y카페를 가야하는 전 날에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다. 사실은 아직도 왜 굳이 y café 프로그램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y café에서 만난 스태프들은 정말 가족같고 편하다. 이 스태프들을 만나기 위해서인건가..



지훈 : 오늘은 드디어 Y카페에 가는 날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짜증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러온 첫 날의 설렘 같은 것들이 생각났다. 문을 열자마자 바빴다. 그 와중에도 계속 우리를 신경써주는 스텝들에게 고마웠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익을수록 재미있어졌다. 정말 모든 일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가 왜 여기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마다 마음가짐을 다잡았다. 즐거워졌다. 일하는 틈틈이 사무실에 있는 윤신과 라헬라도 우리를 신경써줬다. 너무 고맙다. 마음 씩씩이가 예쁘다.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바쁘게, 조금 더 부지런하게 나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겠다. 이 소중한 시간들은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광호 : Y카페 첫 출근을 했다. 빵과 커피로 허기를 달래고 아르바이트하는 기분으로 일을 시작했다. 커피와 티 서빙이 주임무중의 하나였다.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다. 바쁘다. 다행히도 피크타임이 지나고나니 한결 한적해졌다. Y카페 주방장인 조에게 칼질을 배웠다.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기는 처음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 일이 재미있다. 이런거 하려고 라온아띠에 지원해서 여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일하면서 스태프들과 이야기도하고 언어도 배우고 결국 이런 카페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은 해보지 못한 나만의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간식거리를 챙겨주시는 스태프들, 루비와 마리아, 조 그리고 제니에게 너무 고맙다.

혜민 : Y카페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스태프들이 우리에게 참 잘해준다는 생각에 편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라온아띠라는 생각을 했을 때 카페는 엄연히 말하자면 이익을 내는 구조고 내가 그 안에서 일을 하는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 오히려 CCF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노인들을 만나거나, 데프스쿨에서 수업준비를 하는건 돈을 받는 이익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라온아띠에 적합하고 맞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Y카페 활동이 나 스스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건 사실이지만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차라리 내가 Y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가난한 노인들이나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일했다면 더 행복하고 더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싶다.



7. CCF(Community Care Focus)

교회가 운영하는 CCF 센터에 가서 아이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과 1주일간의 공예수업을 진행하였다.





광호 :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노인분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무언가를 해야한다. 도착하니 몇분이 앉아계시는데 한국에서 보던 여느 할머니 할아버지와 다르게 없다. 배식을 하고 우리 소개가 끝남과 동시에 아리랑을 시작했다. 다행히 기타가 있어서 반주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준비한 게임들, 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즐거워하셨다. 그리고 너무 환영해주셨다. 하나의 활동이 끝났다. 24일,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ccf가 있는 날이다. 어린아이부터 큰 청년들까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게임, 노래를 진행했다. 라사 사양과 올챙이송을 별 탈없이 잘 진행했고 액션게임과 진주조개광이 열기를 후끈 달구었다. 마지막에 시간에 쫓기며 닭싸움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위험해지는 느낌을 받아서 불안불안했다. 그래도 무사히 끝이 났다.



지훈 : ccf아이들을 만났다. 노래로 포문을 열었다. 다행히 모두 우리의 노래를 따라해주고 즐겁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올챙이송, 처음 듣는 한국 노래, 이해도 되지 않는 노랫말이지만 열심히 따라부르고 율동을 해줘서 또한 너무 고마웠다.

의사소통은 모든 일에 가장 큰 문제이자 가장 큰 넘어야 할 산이다. 물론 한국어로 진행한다고 해도 잘 될 가능성을 점쳐보긴 힘들지만 영어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느리고 더더욱 힘도 빠진다. 그나마 꼬맹이들은 너무 귀엽다. 나비접기를 했는데 너도 나도 도와달라면서 내미는 고사리 손들이 너무 귀엽다. 이런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미소를 지었다.



보영 :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니어프로그램은 사실 처음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시니어 분들을 대하는 내 마음이 편해서 그 시간들이 즐거웠다. 율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시니어분들과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뭔가 감동적이었다. 내가 선택해서 한국에 태어나고, 선택해서 한국에서 산 건 아니지만, 다른 문화에서 살다 온 그 자체만으로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문화를 나눈다는게 정말 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또 가진게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간 진행된 공예수업은 프로그램 준비를 잘 해서 만족스럽다기보다는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그 시간들이 즐거웠다는 점이다. 나도 즐거웠고 시니어분들도 즐거워하셨다. 시니어 한분을 보며 계속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다. 더 신경써드리고 싶었다.



혜민 : 아이들이랑 하는 ccf는 다소 힘이 빠질 정도로 아이들이 활발해서 힘들었다. 그래도 많이 즐거웠다. 종이 접기 할 때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당연한건데, 되게 고마워했고 다 만들고 나서 내게 나비를 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모습도 정말 기억에 남는다.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공예 프로그램에서는 돈을 받고 진행한 것이 있어서 부담감이 들긴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도 이런 활동을 할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아라 : 어르신들과 한 ccf 에서는 그동안 내가 아이들하고만 주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어른들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잘 되고있는건가, 가늠하기가 어려웠지만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진행해볼수있어서 좋았다. 수업 헛들은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싶다. 아이들이랑 할 때는 언어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어려웠고 열심히 준비해간 게임을 못해서 아쉬웠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단력을 내린건 잘한 것 같다. 아이들을 한번밖에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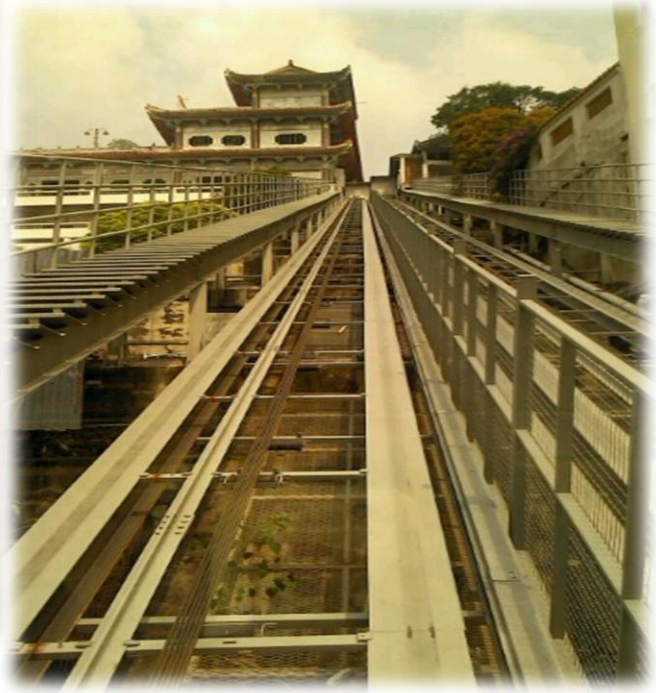
8. 각자의 OFF DAY 이야기



헤민- 페낭에 오고 아이렌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 명씩 off day를 갖게 되었다. 내 off day 전 날 까지, 무얼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다. 특별히 어느 곳을 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쉬게 하고 그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탓인 것 같다. 그래서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에 서있다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고 생각하지도 못한 콤타라는 곳에 갔다. 버스를 타고 창가를 보면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 고맙게 느껴졌다. 근처 마트도 구경하고 거리를 걷다가 라헬라가 데리러 와줘서 얘기도 하다가 순간 과마를 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가게 되었다. 이전부터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머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한 제안에 라헬라가 친구를 소개시켜주면서 미용실에 가기로 약속을 했다. 가기 전에는 라헬라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두리안을 사주셨다. 솔직히 그 날, 처음 먹어본지라 맛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한국가면 먹지 못할 맛이니깐 많이 먹었다. 미용실에 가서 과마를 하면서 잠들고 다 한다음에는 그 근처를 걸어다녔다. 그래서 좋았다. 해야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내 스케줄을 내가 정하고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이 없어서 행복했던 것 같다.



보영: 금요일은 내 OFF DAY였으나 4시까지 돌아와야했다. 그래서 서둘러 아침일찍 준비를 하는데까진 성공! 그리고 처음으로 15분 가량을 걸어가 혼자 아침을 먹었다. 혼자 먹으니까 왜이렇게 밥을 빨리 먹게 되던지.. 밥을 거의 마시다시피 하고 콤타까지 가는 버스를 타는데도 성공! 전 날 Balik Pulau 라는 한적한 해안가 주변의 마을이 있다고 해서 그 곳을 목적지로 하는 버스를 타는데도 성공! Balik pulau에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balik pulau에서 버스를 잘못타는 바람에, 버스를 타고 위로 다시 올라왔다. 숙소 주변의 바닷가인 바투 퍼링기까지...왔다. 버스 여행인줄...^^.. 버스만 2시간 넘게 탔다. 버스를 잘못 타긴 했어도 여유로운 그 시간은 참 행복했다. 그리고 팀원들이 보고 싶었다. 광호오빠랑 지훈이오빠가 넌 진짜 왜 그러냐고 타박하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ㅋㅋㅋㅋㅋㅋ역시나 여행을 끝나치고 돌아와서 버스를 두시간 넘게 탔다고 하니까 광호오빠는 넌 진짜 왜 그러냐ㅋㅋㅋㅋㅋㅋ고 한다. 아, 혼자 하는 여행은 나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또 혼자가는 여행이 주어진다면 그 땐 마음은 오늘처럼 여유롭되 어디갈지 잘 정하고 가야지.



아라- Off day를 맞아 폐낭에서 유명한 사원인 켄록시(극락사)에 다녀왔다. 20년동안 지어진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장 큰 사원이라고 한다. 유명하기도 하고 절에 가면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기로 결정했다.

폐낭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평소 길눈도 어두운 터라 혼자 다녀야 한다는게 많이 부담스럽고 겁이 났다. 콤타르라고 이곳 버스 대부분이 지나는 곳을 가야해서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 그런데 안해보던걸 하려니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땀만 줄줄 흘렀다. 생각해보니 팀원들과 여행다닐 땐 길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팀원들이 찾기를 항상 기다렸었다. 그래서 지도보면서 길 찾을 때 팀원들 생각이 많이 났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을 것이 생각나 미안해졌다. 다행히 콤타르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조금 헤매다 보니 버스가 모이는 곳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켄록시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길을 떠났다. 친절하신 분을 만나 무사히 켄록시 앞에서 내리고 어떻게 가는지 설명도 들었다. 켄록시로 올라가는 입구는 온통 가게들 천지였다. 불교용품만 파는게 아니라 옷도 팔고 잡동사니도 팔고 심지어 카톨릭 성화도 팔았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건가 잠깐 혼란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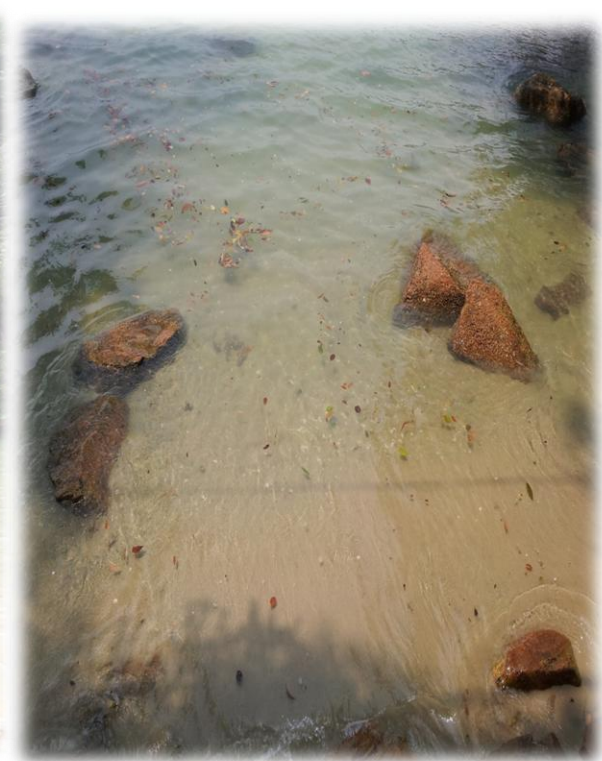
건다보니 켄록시가 나왔다. 알록달록한 색채가 눈을 사로잡았다. 블로그에서만 보던 만불상을 실제로 봤다. 똑같이 생긴 불상이 일렬로 쭉 서있는데 계속 보고있자니 좀 무서웠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관음상도 구경하고 12지 동물석상 앞에서 사진도 찍으며 나름 잘 보고왔다. 그런데 꽤 일찍 도착해서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주위가 너무 시끄러웠다. 자세히 보니 절 곳곳 불교용품을 파는 가게같은것이 들어서 있었고 거기 점원들이 라디오나 노래를 틀어놔서 계속 소란스러웠다. 차라리 불경을 틀어놓지……. 조용한 절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켄록시를 다 돌아보고 내려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아저씨가 말을 거셨다. 젊었을 때 한국인에게 태권도를 배웠었던 적이 있었다는 그 분은 폐낭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폐낭은 혼자다니면 안된다고 걱정도 해주셨다. 아마 팀원들이랑 다녔으면 이런 길동무도 만나지 못했겠지?! 평소 숫기가 많은 나에게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그 뒤에는 콤타르로 돌아가서 그 근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하고 구경도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 아이렌이 한명씩 돌아가며 offday를 갖는 것에 대해 제안했을 때 노는 날이 있어서 좋다고 하긴 했지만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었다. 나는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터라 혼자 놀러다니거나 시간을 `걱정되었다. 그런데 혼자 다니는게 정말로 재미있었다. 생각해보니 말레이시아에 와서 나만의 리듬에 맞추어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싶은일을 하러 다닌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온전히 나에게 맞추어 하루를 보내고 나니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도 풀고, 일에 치여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가지들을 고민할 수 있었다. 짧은 하루였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광호 : 나만의 off day이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여서 무작정 버스를 탔다. 그때 부터 내 계획은 폐낭 버스여행으로 정해졌다. 버스를 맘껏 타기위해 Pass를 파는 곳에 가서 1주일 버스 Pass를 샀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라 버스타갈 때마다 어디까지 가야하는지 말하고 표를 받는 이곳 버스시스템으로선 도저히 맘편히 못 돌아 다닐 것 같았다. 102번을 타고 한 참 달리다 보니 '웰컴투 조지타운'을 등지고 버스가 달려간다. 비행기가 보이는 시점에서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걸 알고 반대방향으로 다시 탔다. 다시 한참 달리니 바다가 보이고 버스는 해안을 따라 굽이굽이 돌아서 종점에 이르렀다. 예쁜 선착장이 보이고 에메랄드빛 해변이라 불릴만한 곳도 보인다. 여기가 Teluk Bahang. Taman Negara라고 쓰여있는 팻말이 보인다. 정글을 이르는 말 인듯하다. 무작정 들어가서 혼자 걷는게 힘들진 않았지만 정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은 무서웠다. 악어만한 크기의 도마뱀... 아니 어찌면 내가 본게 악어였는지도.. 원숭이들.. 그리고 마땅히 화장실을 찾지못해 돌아 들어간 곳에서 본의 아니게 뱀을 만났다. 더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을 만날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아 그 썸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걷는 내내 이곳에 팀원들과 함께 왔으면 더 재미있었겠다는 생각을 했다.

BUKIT BENDERA PENANG HILL

지훈:

오늘은 오프데이! 하루 전 날, 페낭힐에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설렘반 기대반으로 잠이 들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끈다. 10분간격으로 알람이 울린다. 끈다. 그리고 10시 반, 화들짝 놀라서 일어난다. 한국에서 어디 가기전에 꾸물꾸물거리던 버릇이 나왔다. 우. 결국 12시 반이 되어서야 숙소를 나섰다. 점심을 먹고 나서 콤타르빌딩으로 갔다. 이곳에선 페낭의 모든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곳이다. 조금 기다리니 기다리던 204번 버스가 왔다. 낮선 곳에서 낮선 풍경이 지나간다. 덜컹거리는 버스안에서는 이곳에 사는 그들이나 한국에서 온 나, 모두가 다 흔들린다. 웬지 모르게 나도 이 곳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다.

페낭힐에 도착했다. 사실 페낭힐을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지만, 혼자가는 일정탓에 모두가 반대했다. 그래서 결국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정말 걸어서 페낭힐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모두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았다. 케이블카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최신식으로 바꿨다고 했다. 지금은 87년간 쉼없이 운행되던 '후니쿨라'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대신 빠르고 에어컨이 나오는 최신식 열차로 바뀌어있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탁 트인 폐낭 시내 모습이 보였다. 사실, 땀도 하나도 흘리지 않고 이 값진 풍경을 보는 내 모습이 조금 아쉬워져서는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웬일인지 힘도 별로 들지 않았다. 오랫동안 상쾌한 공기를 맡으니 오히려 더 상쾌해졌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케이블카로 돌아왔다. 최신식 케이블카에서는 여전히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다. 내려오는 도중 레일 한켠에 작동을 멈춘 옛날 케이블카가 보였다.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게도 에어컨의 시원함이, 쾌적함이 내 아쉬움을 어느새 지우고 있었다.

푸트라자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KLIA Transit 을 타고 가려고 기차를 기다리면서 플랫폼에 서있었다. 옆에 있던 청년이 다가오더니 나에게 길을 물어본다. 그것도 바하사로! 와, 드디어 나도 현지인이 됐다. 당황스럽기도했지만 씩하고 웃어줬다.



푸트라자야에 도착해서 푸트라모스크 (일명 핑크 모스크) 로 가는 버스를 탔다. 세종시가 벤치마킹했다던 도시답게 차창밖의 풍경은 흠잡을 곳 없었다. 여기가 싱가포르가 아닌가 하고 착각이 들 정도다. 저 멀리 핑크모스크가 보인다. 나의 복장으로는 핑크 모스크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입구에서 망토를 대여받았다. 핑크모스크답게 핑크색 망토다. 처음 들어가는 모스크에서 멍하게 있으니 나이 지긋하신 무슬림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곳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 무슬림에서 부터 코란, 그리고 그들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어찌나 열성적으로 설명해주시는지 한마디 한마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100%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내가 그분에게 미안해졌다.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다. 그리고 더 알고 싶었다. 내 마음을 알아차리셨는지 강가 반대편을 가르키시며 저쪽에 있는 스틸

모스크에 가보겠다고 물으신다. 10분후에 저 곳으로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하셨다. 선뜻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알 수 없는 거부감도 동시에 들었다. 아마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고 내 자신을 타하면서 아주머니의 차에 올라탔다. 아주머니는 전직 간호사였다. 은퇴 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찾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아주머니를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스틸모스크에 도착했을때 이미 6시가 지나서 입장이 불가능했...지만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특별히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다.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고 싶어서 메일 주소를 물어봤다. 아주머니는 다음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달라고 하셨다. 우리가 만난건 신의 뜻이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신의 뜻이기에 걱정하지말고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라고 하셨다. 여태껏 나는 종교가 없이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종교에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종교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모스크를 나와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는 버스정류장. 왜인지 모든 버스가 나를 무시하고 지나쳐간다. 길 건너 내 또래의 친구한테 소리쳐 물어봤더니 이내 대답이 돌아온다. "버스도 택시처럼 잡아서 타야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번에 오는 버스를 과연 그렇게 탈 수 있었다. 버스에 탄 후 그 친구쪽을 향해서 웃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 친구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보답해줬다.



6월의 재미진 사건, 사고



스태프 yunxin과 유스클럽 분들과 빅버거를 먹으러 감. sedap!!!



유스클럽과 yunxin과 영화를 보
러감. 짱 재밌다능.



아라 : 한국에서 원래 극장에 가면 애니메이션을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외국이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갔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것은 영화시작 10분이 지났는데도 영화가 시작하지 않았다는점, 그리고 의자사이 간격이 엄청 넓어서 지나다닐 때 민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영화관에서 발냄새가 좀 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영화가 자막이 없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만 본다는 인식의 애니메이션을 성인들이 깔깔 웃으면서 보는 모습에 이 곳 사람들은 참 순수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영화 주된 내용이 딸과 엄마의 주된 갈등과 회복이었는데 예전 나와 엄마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엄마가 보고싶어졌다.

지훈: 유스 클럽 친구들과 파사말람에 갔다가 영화보러가자는 제안을 받게되었다.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무슨 영화야 싶었는데, 말레이시아 극장도 궁금하고 해서 선뜻 따라나섰다. 우리가 볼 영화는 brave라는 영화였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검투사들의 화려한 액션이 펼쳐질줄 알았다. 근데 그 영화는 애니메이션이었다! 속으로 정말 이 친구들 건전하게 노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극장 안을 들어선 순간 깜짝 놀랐다. 빈자리 없이 좌석을 뺑뺑이 메운 성인 관객들을 보고는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다 라는 내 편견, 고정관념은 무너졌다. 심지어 영화가 시작한 후에는 영화에 흠뻑 빠져서 신나게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다음에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덕분에 즐거운 하루였다:)

King Of Fruits, Durian을 맛보 다

광호 : 두리안이 먹고 싶어서 라헬라를 졸랐다. 가자고 쿨하게 그러더니 또 쿨하게 두리안 3통을 시켰다. 두리안은 3가지 종류가 있다. 골드, 옐로우, 화이트 이렇게 3가지에 50rm (18000 - 20000원) 비싼 가격이다. 화이트 두리안이 그나마 내 입맛에 맞았다. 솔직하게 맛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이니깐 여기 있을 때만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먹고 싶었다. 우리가 40rm을 냈다. 속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데리고 다닌 라헬라가 고맙다.

보영 : 두리안 맛은....음.....죽을 맛

지훈 : 오늘도 저녁을 폭식했다. 호켄미를 먹고 차퀴테오도 먹었다. 그런데도 성이 안차서 라헬라를 부추겨서 두리안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라헬라는 두리안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 맛도 다르기 때문에 팬찮을 거라고 했다. 나도 베다니 홈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악몽 같았던 두리안은 아닐거야 하며 왠지 모를 기대를 하고 있었다. 특유의 향이 풍겨왔다. 색깔이 하얀색, 노란색, 금색의 두리안이 있었는데 금색 두리안은 베다니홈에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였다. 보영이가 같이 오지 않았던 탓에 그 금색은 보영이를 주기로 했다. 하얀색 두리안이 제일 먹음직했다. 그 나 마. 우리를 위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준 라헬라의 성의를 봐서 열심히 먹었다. 아마 당분간은 두리안을 먹을 용기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아라 : 아무리 궁금해도 두리안은 먹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헤민언니가 두리안을 4개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뭘까라는 호기심에 덩달아 먹게 되었다. 하얀두리안은 참 먹을만 했고 계속 먹다보면 나중엔 좋아할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금색두리안은 정말 괴로웠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바틱 스커트 입기!



Yunxin과 유스클럽 친구들과 땡가
땡가. 아민은 자고있냐는...



Y café 스태프 ruby 가족
들과 나들이중☺



Rahela의 조카 Alin이
랑♥ 얼굴크기 어쩔..

지훈이오빠도ㄸ..

나빌라도 한복입
기 ♥ 귀여웁♥

3월, 바하사 시간에 만난 대학생
친구들을 KL서 다시 만나다!
광호오빠는 어디갔을까?





CCF에서 만난 시니어분들과 런치타임!



바투퍼링기 근처에서 예쁜 엘린.



데프스쿨 우이쌤이 주신 싱싱한 람부탄.

차타임의 버블은 정말 맛있다. ♥

Assam Lak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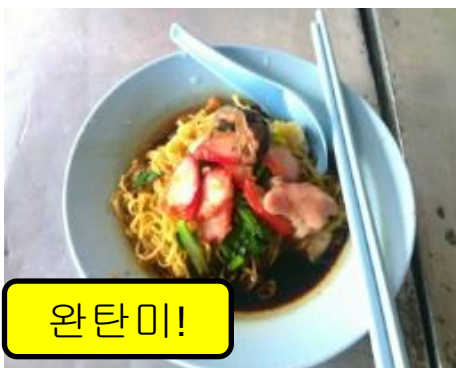
새우탕 맛이 나는 hokkien mee.



MAKAN MAKAN , JALAN JALAN



Dim Sum



완탄미!



시원한 아이스까짱



차 퀴 테오!
일명 담배숙주



Lok lok.
해산물꼬치♥



6월의 한마디 – SONIA



여태까지 보냈던 한달 중 가장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한달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하기만 급급했지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 주위를 돌아보지는 못했던거 같다.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엔 찬찬히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

6월의 한마디 – KIM



5개월이라는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많은 일들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분에 넘치게 행복했던 시간들도, 아쉬웠던 시간들도 다 사람 덕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곧 사랑이고, 사람이 곧 행복이다. 나의 5개월을 빛나게 해준 날 스쳐간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그분들 덕분에, 너희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아마 나는 혼자였다면 아마 벌써 포기 했을지도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6월의 한마디 – AMIN

라온아띠에 오기 전, 마지막 국내 훈련 때 라온아띠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를 알아가고 싶다고 했었다. 그래도 나를 솔직하게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저 행복한 척, 실제 조혜민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지낸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보니 내가 힘들어도 왜 힘든지, 아파도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아프다’ 인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게 큰 문제였다. 몇 주가 남은 지금, 나는 나를 알았을까. 잘 모르겠다.

5월도 그랬지만 6월은 아픈 날이 많았다. 참다가 결국 터져서 며칠동안 방안에 누워있기만 했었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되게 미안했고 내 자신이 한심했다. 큰 프로그램이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피곤하고 지친 팀원들을 볼 때마다 더 미안했다. 아픈 게 밥을 잘 챙겨먹지 않은 탓이어서 그런걸까, 하고 그래도 잘 챙겨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아파서 내 일을 팀원이 대신해주고 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외로웠지만 따스했다. 여기서 겪는 일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애기 들어주는 친구들, 아무말없이 울고 있으면 휴지 들고 와줬던 팀원들, 며칠동안 밥 못 먹고 누워있으면 뭐라도 먹으라고 엄마처럼 챙겨주는 말레이얏호 덕분에 힘들지만 따스했다. 그리고 폐낭까지 와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are u ok?’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에스더, 항상 우리의 저녁을 함께 해주려고 노력하는 라헬라까지. 아마 그 따스함을 나는 자꾸만 잊고 쉽게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내 안의 벽을 만드는 멍청한 행동을 또 하겠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남은 시간이 정말 별로 없는데 자꾸만 몸이 안좋아서 큰일이다. 중심 잡고 잘 마무리 하고 싶다. 한국에 가서 후회할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 우선 건강해야겠다.



6월의 한마디 – DAVID

캄보디아 여행을 시작으로 숨통을 트이며 시작된 6월은 중간평가와 함께 설렘없는 폐낭일정으로 이어졌다.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 활동들을 점검하고 폐낭으로 오는터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동기를 잃었으면 동기를 찾아야 했고 목적을 잃었으면 목적을 찾아 다시 찾아 시작해야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이전 활동과는 달리 폐낭에서는 노인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Deaf 스쿨에서의 수업, Y cafe 활동 보조 등 구체적인 활동 내역들을 회의를 통해 하나하나 정해야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5분, 10분 단위로 무엇을 해야할 지 정해야 했다. 베다니 홈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냥 아이들과 즐기기만 했던 나로서는 적응하기 여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성취감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어서 욕심을 낸 부분도 있다. 여기 폐낭에서도 역시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유스라 하기엔 나이가 좀 많지만 유스친구들과, 항상 우리가 말레이시아 음식을 많이 못먹어 봤을거라 생각하며 우리를 데리고 다니며 음식을 사주시는 분들이 많다.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제 귀국할 날이 한달도 채 안남았고, 이것으로 마지막 보고서가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라온아띠 말레이시아 팀의 마지막 보고서가 된다. 아쉽다.

몸 건강히 잘 지내는게 쉬운일이 아니란걸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남은 기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귀국해서 후회없이 살다 왔다고 말하고 싶다.

6월의 한마디 – BOBO



맘에 쏘드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 ‘늘 변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똑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고, 심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또는 몇 년 전의 낡은 자로써 현재의 그 사람을 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의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글을 읽었다. 많은 사람들과 지내면서 상대에게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대를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데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런태도를 취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그러면서 마찰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준다. 그래서 난 참 힘들었던 적이 많다. 그런데 이 글이 내게 해답을 알려주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좀 더 고민을 나누고,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

남은 기간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 뿐이다.

한달도 안 남았다.



공항에서 만나요♡